
왜 에보 모랄레스는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가?

–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발휘되는 사회주의운동당의 힘

페르난도 몰리나

볼리비아의 언론인이며 작가다. 2012년에 ‘이베로아메리카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스페인국왕 상’
(Premio Rey de España al Periodismo Iberoamericano)을 수상했다.

핵심어: 변화 과정, 협동조합주의, 국유화, 사회주의운동당,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지난 3월 28일, 여당인 사회주의운동당(Movimiento al Socialismo: MAS) 창당 기념식에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와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Alvaro García Linera)는 2014년에 실시될 볼리비아 대선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두 번째로 재선되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같은 의도에 부담을 주는 법적 제한 요인은 헌법재판소의 특별 승인을 통해 보장되었다.¹⁾ 아무튼 확실한 점은 사회주의운동당과 당의 두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루어질 모든

1) 2009년에 제정된 헌법은 대통령의 재임을 한차례만 허용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2009년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에보 모랄레스의 임기는 1차 임기에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2009년 대통령선거에서 에보 모랄레스의 승리는 재선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에보 모랄레스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09년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1차 임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석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신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가 ‘재건되었기’(refundado) 때문에 에보 모랄레스의 1차 임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판결했다.

선거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에보 모랄레스가 6년 동안 통치한 뒤로는, 소위 ‘변화 과정’ 초기에 그를 둘러쌌던 신선하고 활력 있는 아우라가 부족해졌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변화는 이미 일어났고, 2002년과 2009년 사이에 그랬듯이, 변화는 더 이상 볼리비아의 주요 동인이 아니다. 볼리비아의 개혁에서 사회주의운동당이 행한 주요 공헌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현재 이 당의 미래는 에보 모랄레스가 상기 기간에 계획하고 적용했던 법, 제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오늘날 볼리비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이 변화의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화는 과연 지켜진 약속이었으며, 또 어느 정도까지 지켜졌는가? 국가의 변화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특징(사회주의, 민족주의, 국가자본주의)을 지녔는가? 이는 정치적쟁점 사안인데, 그 이유는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이 각 정당의 입장, 즉 현 정권과 연대하는 세력이나, 비판적인 추종 세력이나, 반대적인 세력이나 또는 적대적인 세력이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볼리비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징표는, 그런 토론이 지난 세월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미래를 향해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향해 투사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볼리비아의 혁명적인 힘은 많이 낭비되었고, 볼리비아의 변화 과정은 그동안 이룩한 결과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영웅적인 몇 년’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성찰의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것은 사회주의운동당 정부의 정책이 시행된 동안, 그리고 그 정책 덕분에, 사회주의운동당에 의해 축적된 밀천이다. 이 글은, 반대파의 대다수가 지적하듯이, 이런 유산이 ‘카드로 지은 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유산에 관해 기술할 것이다(이 유산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운동당의 새로운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지난 정책의 성과에 관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관점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속 가능성이 적은 국영기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조치는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논쟁할 만한 사안인데, 볼리비아 국민의 특정 집단을 국가기관에 편입시키고,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내 생산업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국가의 존재를 영토와 시장에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운동당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근 몇 년 동안의 변화는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수사적인 것이었고,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었으며, 의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었으며,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오류를 더 많이 범했다. 반대파들은, 각기 다른 이유에 근거한다고 해도, 이런 진단에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좌익 반대파에게는 이 정권의 업적이 초기의 꿈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권이 50년대의 자원 착취적 발전주의와 민주주의적 민족주의에 함몰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정권이 사회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론 성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이루었을 수 있는 성과보다 훨씬 더 작다.²⁾ 채택된 방법은 결국 사회주의운동당을 전통적인 정당으로, 즉, 수직적이고, 민중 선동적이고, 카우디오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고 말 것이다.³⁾

반면에, 우익 반대파들에게는 문제가 꿈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국가 통제주의는 재분배의 모델을 바꾸기 위한 정책인 바, 이는 친여권에 혜택을 베풀기 위한 것이지(민간의 활동을 방해하면서),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원주민의 권력화는 상징적이며, 또 친여 집단에만 해당

2) 예를 들어, Movimiento Sin Miedo(2012) 참조.

3) 2000년에 소위 물전쟁(guerra del agua)을 지휘한 오스카르 올리베라(Oscar Olivera)의 말이다(“El MAS...” 2013).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보통의 원주민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인 기회를 향유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⁴⁾ 경제는 원유와 다른 광석의 국제 가격의 붐(boom) 덕분에 잘 굴러가고 있는데, 정부가 수입재와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재화(교역을 통한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한 재화)의 내수는 진작시켰으나, 여전히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두세 가지 원자재 수출을 통해 얻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특별 수익을 경제 적 합리성이 결여된 프로젝트에 낭비하고 있을 것이다(Morales 2013).

그런데 이런 비판은 동일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지 않거나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유아무야되어 버린다고 지적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의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관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이에 관해 밝히고자 한다.

1. 경제적인 힘들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볼리비아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와 국가의 경제적인 번영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국가 번영의 주요 동인이 수출로 인해 국가 수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수입은 10년 동안에 20억 달러에서 약 1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같은 수입 증가는 볼리비아가 수출하는 품목의 국제가격 상승 덕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광산, 주물공장 등 주요 수출 네트워크를 국유화함으로써, 자본의 유출로 인한 국가수입의 증가 추세가 꺾이는 것을 막

4) 이는 페드로 포르투갈(Pedro Portugal)이 2011년 7월 26일 라파스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민주주의의 제면모(Los rostros de la democracia)'에서 발표한 것이다.

있다는 것은 현 정부의 덕으로 돌려야 한다. 게다가, 정부의 국내통화 강화 정책과 국제금융의 취약성 덕분에 외국의 볼리비아에 대한 투자는, 2012년도 은행업계의 적립금과 대출금 보유고(각각 77억 달러와 64억 달러)에서 보다시피, 모범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볼리비아의 외환 보유액이 국내 총생산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14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국내 자본의 도피가 통제되자, 국내에 남게 된 자본이 가파른 수요 상승을 촉진했는데,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수요가 급격하게 신장했고, 그 후 몇 년 동안에는 연간 평균 4.8%의 생산 증가를 기록했다(Arce 2013).

공공지출의 확대 덕분에 수요가 2005년의 약 6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오늘날 볼리비아는 2006년에 비해 일자리 50,000개를 더 창출했다(신규 일자리가 75,000개에서 125,000개로 늘었다). 공공투자는 지난 5년 동안 여섯 배나 증가해 현재는 국내 총생산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민간 투자와 국내의 민간투자가 각각 국내 총생산의 4%를 차지하고 있다. 투자 총액은 국내 총생산액의 19%를 차지하는데, 이는 볼리비아가 통상적인 투자액보다(1990년대 중반에 민영화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투자 총액은 국내 총생산액의 16%였다) 많은 것이다(Arce 2013).

수요를 진작시키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국내 수입의 증가인데, 이는 현재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거의 완전한 고용(이는 무엇보다도 건설업의 활황 덕인데, 건설업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사회정책 예산, 그리고 5%가 넘는 공식 인플레이션을 전반적으로 웃도는 임금 상승 덕분이다. 최저임금은 127%가 인상되었는데, 이는 건설노동자, 가사도우미 같은, 가장 취약한 피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상승이다(Arce 2013).

그렇다면, 실제 인플레이션은 어떠한가? 국민들은 식품비와 교통비 상승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데, 이들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발표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

을 상회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은 각 가정의 취업 인구 증가, 식품(밀가루, 닭, 설탕, 쌀, 빵, 우유) 가격의 통제정책에 의해 중화되고 있는데, 이런 통제정책이 현재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정부는 밀가루, 설탕, 쌀, 건조 옥수수과 밀의 도매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3억 9,500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당했다(Jemio 2013).

정부가 노인, 임신부, 일부 학생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현금 지원(bonos)은 국민의 33%, 즉 33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1인당 연간 28달러에서 340달러까지 지급된다. 사회주의운동당 정부는 현재까지 90만 명의 노인에게 12억 달러의 기초노령연금(Renta Dignidad)(연금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편적 복지 형태로 지불한다)을 책정해 놓았다(“La Renta Dignidad...” 2013).

국내 시장의 확대는 영세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공식 경제의 규모가 아주 작은 볼리비아는 영세사업자가 아주 많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밀수에 종사하고 있다. 관료적이지만 제법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는 세관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어느 연구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상품의 양이 합법적인 수입의 5분의 1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Confederación de Empresarios Privados de Bolivia. 2009). 만약 이를 2012년도의 국내 수입액에 적용해 본다면, 그 액수는 국내 총생산의 7.4%에 해당하는 15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같은 밀수와 마약거래(위에서 언급한 연구는 마약거래에 관해서는 다루 않았다)에는 수많은 사람이 고용되어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다른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전기요금을 동결했는데, 특히 빈민층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은 아주 싸다(민생요금 감면 정책). 정부는 89만 명의 국민에게 혜택을 베풀고, 전력

회사에 8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Autoridad de Fiscalización y Control Social en Electricidad 2013). 이런 정책으로 볼리비아의 전기요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저렴한데, 전기요금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가장 저렴했다.⁵⁾

- 수도 요금에도 민생요금 감면 정책을 적용한다.

- 정부는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료비를 동결함으로써, 1인당 100달러씩을 지원해준다. 이 정책은 교통비 지출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가계수입의 80%~90%를 교통비와 식품비에 쓰는 극빈층에게는 교통비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 2011년 말경에 정부가 중단한 연료비 지원은 치명적인 정책적 오류였다. 당시 국민의 반대가 완강했기 때문에 정부는 즉시 보조금 중단 정책을 철회해야 했다. 그 순간부터 보조금이 국경을 통한 가솔린의 밀수를 촉진하거나 결국은 국고의 출혈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복잡한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⁶⁾

- 정부는 국영기업들(국영항공사 'Boliviana de Aviación'과 국영 텔레콤 'Entel')의 항공 요금 및 통신 요금을 통제하는데, 자체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진 국영기업이 이런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특히 가격 통제 임무를 수행했다.

- 각종 관공서와 민간기관에서 시민들이 출생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을 폐지했다.

- 운수노조가 중국 산 버스 2,000대를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억 달러를

5) 세계은행의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 전력수급 벤치마킹 데이터 1995-2005'에 따르면, 2006년에 볼리비아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0.0614달러였는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의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0.115달러였다(<http://info.worldbank.org/etools/lacelectricity>). 6년 후, 볼리비아의 가정용 전기요금 평균은 kWh당 1.166달러였다(Mamani 2013)

6) 볼리비아에서 가격 정책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1985년과 2005년 사이에, 즉 지난 20년 동안에 겪은 좌파의 실패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반 좌파정부는 가솔린 가격을 통제할 줄 몰라서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혹은 코차밤바에서 기본 위생 서비스 요금의 과도한 인상 때문에 그 유명한 물전쟁이 촉발되었다. 이 물전쟁으로 사회주의운동당은 2000년에 집권하게 되었다.

신용대출했다.

- 13만 명의 실업여성(국가의 긴급 취업계획의 기수혜자)이 국가의 지원 하에 아 마존 지역의 조립사업 같은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함으로써 도시의 극빈층을 24%에서 14%로 감소시킬 수 있었고, 시골의 극빈층을 63%에서 43%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Arce 2013). 동시에 볼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의 중산층(1일 평균 수입이 10달러 이상인 사람들) 증가 현상의 혜택을 입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5천만 명의 새로운 중산층이 탄생했다(Banco Mundial 2012).

새로운 중산층은 생산성의 향상이 아니라 수입의 효율적인 분배로 인해 탄생 하기 때문에,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따라서 나중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중산층이 갑작스럽게 늘어 남으로써 그동안 계층과 민족 사이에 형성되었던 상호관계가 변해버렸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느 정도의 부를 향유하는 원주민(외관상으로는 영락없이 원주민처럼 보이는 메스티소를 포함하여)이 갈수록 많아짐으로써 예전의 백인 엘리트와 나머지 국민 사이의 세력관계가 변했다. 백인 엘리트의 인종주의가 확산되지 못하고, 빈자를 포함한 모든 원주민이 심리적으로 강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썩 지속적이지는 않아 보이는 소규모 국영기업, 즉 골판지 제조공장, 우유 및 과일 가공공장 같은 기업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사업은 불충분하고, 일부 경우에는 부패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Fundación Milenio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가 벽지에 세워졌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록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상징적인 의미는 갖고 있다. 국가는 이런 기업과 더불어 과거에는 접근조차 못했던 곳에 진출하고,

또 금, 아몬드, 꿀을 채취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영세 기업의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업이 완전히 파산하지 않고, 공적자금으로 경영난을 극복하고 있는 한, 국가의 경제 주권을 되찾고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이런 기업이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YPEB)는 대규모 자본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 전개될 상황에 의구심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코차밤바에 8억 달러를 투입해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실제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석유화학단지외 특히, 볼리비아 국영석유가스공사가 주요 도시를 연결하려고 건설하고 있는 가정용 가스관은 국가 경제에 대한 국민 대다수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적어도 일부 여론조사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그러하다(PAPEP 2010).

기간시설에 투입되는 자본 역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887km의 도로가 건설되었다면, 2006년과 2012년 사이에 건설된 도로의 총 길이는 이전의 두 배였다. 이 기간 동안 도로 건설에 투입된 자금은 2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볼리비아의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다(Gobierno del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2012).

2. 사회적인 힘들

볼리비아의 사회적 기반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상징하는 원주민 협동조직망인데, 한편으로, 이들 조직은 시골 지역과 작은 마을에는 부재하는 국가 기관을 대체하고 있다.

이들은 공적인 문제에 관한 대중 운동의 대부분을 조직하고 이끄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시스템이다. 이들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선거를 포함한 국가의 정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의 통치력을 확고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회주의운동당은 이런 조직 체계의 일부다(Stefanoni & Do Alto 2011). 이 정당의 발전과 정당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집단주의의 유연한 형태인 협동조합주의(corporativismo)가 공적인 무대로 복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우월성을 추종하는 세력이 계약사회적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10년 동안(1990년대) 협동조합주의를 배제하려고 시도한 끝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논거를 보자면, 협동조합주의는 볼리비아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조직 형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운동당의 주요 힘은 협동조합주의와의 이데올로기적·조직적인 일치에서 비롯된다.

협동조합주의적 단체는 다양한 이해를 지닌 집단 사이의 논쟁을 촉진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이들 단체에 기반한 정치 시스템은 분파주의와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그렇지만 볼리비아의 협동조합은 논쟁으로 전략적인 연대가 위협 받지 않는 영속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사회주의운동당 안에서 찾아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운동당의 성공은 사회주의운동당이 현재까지 이론·역사적·정치적 차원의 성과, 당의 파벌을 융합시키는 민족적 유대, 적에 대항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필요성 같은 것들 덕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공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걸출한 카우디요로 가득 채워진 볼리비아의 정치사에서 가장 유능한 카우디요 가운데 한 사람인 에보 모랄레스를 향한 총체적인 충성심이다.

사회주의운동당은 하나의 이념과 한 명의 지도자를 배경으로 한 협동조합주의의 단결을 상징하며, 이와 동시에 볼리비아 좌파의 단결을 상징한다. 이런 식

으로, 비록 당내 파벌 사이에 싸움이 상존한다 할지라도 현재까지 이런 파벌 싸움이 당의 이념적 테두리를 벗어난 적은 없다. 또한, 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결을 유지하고 있다.

① 당내 불협화음이 발생할 때, 당은 반대자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자들을 출당시킬 수 있다. 올해 초에 부통령 가르시아 리네라는 사회주의운동당의 노선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당원들 자격을 박탈했다. 특히 당시 하원의장인 레베카 델가도(Rebeca Delgado)의 당원 자격을 다음과 같은 논리를 동원해 박탈했다. 가르시아 리네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주의운동당원들은 자유사상가들이 아니라 혁명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법규에 따라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을 떠나야 합니다.” 물론, 사회주의운동당은 사회주의적 단체로 구성된 정당으로서, 사회주의운동당이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를 적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적어도 당의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 글의 서두에서 밝힌 바 있듯이, 사회주의운동당 창당 기념식에서 에보 모랄레스는 “우리는 당에서 멀어진 몇몇 동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②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협조적인 사회주의 운동이나 아니면 비협조적이고 대항적인 사회주의 운동이나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르다. 첫 번째 경우, 즉 사회주의 운동이 정부 방침에 협조적이라면, 정부는 갈등을 “혁명 안에서 생기는 생산적인 긴장”으로 규정하고(García Linera 2012), 이 운동의 지도자와 맺은 관계, 정부의 지도자가 유력한 세력 사이에서 향유하는 인기 등에 의존해 사전에 갈등을 무마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정부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 가능한 한 양보를 한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정부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때 정부는 이런 사회주의 운동을 반대자로 간주한다.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은 방금 전에 기술한 바와 다르다. 반대자는 정부로부터 공공연하게 조롱을 당하고, 반대자의 의도가 단순히 요구인지 아니면 정치적 도전인지 의심을 받게 된다.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는 반대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반대자에게 맞서기 위해(설득하기 위해) 협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사회주의운동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볼리비아는 변화하고, 에보는 변화를 완수한다”(Bolivia cambia, Evo cumple)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분야(예를 들면 건설)에서 3,900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금까지 4억 8천만 달러(대부분의 베네수엘라의 재정 지원을 받아)를 투자했다. 이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시골 지역 지자체에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경우는 지자체장이나 사회단체가 요구를 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기 때문이고, 다른 경우는 여당에 반대하는 지역에서 선거 때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분배하는 것이 단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치적 균형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에보 모랄레스가 참여하는 ‘상시 캠페인’의 직접적인 도구인데, 에보 모랄레스는 매일 같이 멀리 떨어진 지역을 방문하여 인조잔디를 갖춘 축구장 개장식, 학교 준공식, 노동조합 지부 결성식, 시장 개소식 등에 참석하고, 사회주의운동당의 지역 지도자와 협정을 체결하며, 여전히 정부의 정책을 확신하지 못하는 청중에게 연설을 한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이 분명하다.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협조자에게 혜택을 베풀고, 과거의 반대자를 정부 여당으로 흡수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약속에 대한 대가로 확

실한 보상을 얻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단골손님을 끌어들이는다.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금 중 적어도 2천만 달러가 기간시설 건설 및 노동조합, 원주민 지방 분부, 다른 협동 단체의 자산 매입에 사용되었다. 비록 일부 경우에서 프로그램이 완수되지 못하거나 경제적·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한 지역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성에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볼리비아 정부는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사회주의 운동'에 속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요 정책 결정자가 대통령, 내각, 사회주의운동당의 소규모 지도부이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경우, 구성원은 사회주의노동당의 창당 멤버 두세 명에 불과하고, 원주민도 소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권력이 부여될 수 있었는데, 이런 사회주의 운동은 국가를 구성하는 3부에 대표자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의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데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시골 지역에서 국가의 공공서비스(주민의 권리에 관한 교육, 각종 증명서 발행 등)를 제공하고, 토지문제 토론에 구 엘리트의 참여를 강요함으로써 원주민과 농부가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차코 지역에서 그렇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정부의 개입이 중요했다. 1996년과 2005년 사이에 토지 소유권이 승인되고, 930만 헥타르의 토지가 등록되어 17만 4천 명이 혜택을 입었다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5,500백만 헥타르의 토지 소유권이 등록되어 98만 2천 명이 혜택을 입었다. 2012년에 등록된 농업용 토지의 소유권만 해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등록된 소유권의 네 배에 이른다(Gobierno del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2012).

이처럼 원주민과 농민에게 힘을 부여하게 된 주요 장치는 반(反)인종주의 법인데, 이 법은 인종편견을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인종편견을 없애 왔다.

3. 정치적인 힘들

최근 십 년 동안 볼리비아에서는 마르크스적인 용어로 ‘정치 혁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건, 즉 정치 엘리트가 거의 다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각기 다른 민족, 계층,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과거의 정치 엘리트를 대체했다. 과거의 정치 엘리트는 일종의 상징적인 추방을 당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다. 기업가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⁷⁾ 일부 정치 지도자는 보신을 위한 예방조치로 망명을 떠나야 했으며, 일부 정치 지도자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⁸⁾ 물론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운동당이 일종의 ‘국가 정당’(사회주의운동당 밖에서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으로 바뀌는 데 기여했다. 비록 사회주의운동당이 다른 혁명적인 실험에서 이런 유형의 정당이 유지했던 제도적인 충실도를 결여하고 있

7) 야당 지도자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Samuel Doria Medina)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기업가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환영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냈다.”(Samuel Doria 2012).

8) 2012년 9월 9일에 AFP의 어느 특파원은, 주 볼리비아 유엔 대표부(Organización de las Naciones Unidas)의 대표 요리코 야쿠사와(Yoriko Yakusawa)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의 추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해 9월 18일, 볼리비아 뉴스 에이전시 피데스(Agencia de Noticias Fides)에 따르면, 가톨릭교회의 주교회의(Consejo Episcopal Permanente de la Iglesia católica)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많은 사람들,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되고, 망명하고, 도피한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보장이 없고, 또 정의가 유예됨으로써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의의 실현이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졌는데, 이는 면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성을 확립하는 공정한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주교회의는 정치범과 망명자의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필자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볼리비아의 정치적 혁명으로 인한 망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다면 아주 유명한 경우인데, 2003년 10월 시위 진압작전으로 기소된 경우, 2008년에 산타 크루스에서 무장민병대를 조직한 이유로 조사를 받은 경우,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주(州)와 시 및 도로부터 쫓겨난 포토시의 시장, 라 파스, 코차밤바, 타리하의 주지사 경우이다. 반면에, 외국에서 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인 성격의 자발적인 망명을 하려고 조용히 나라를 떠났던, 과거 정당 체제의 전직 공무원과 당원 수백 명의 경우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야당이 지역 정부를 성공적으로 유지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정부 여당은 가장 강력한 후보자와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에(Captura Consulting 2013)⁹⁾ 의존하는 것 말고도, 선거재판소의 엄격한 관리나 재선거 가능성 같은 정치·선거 조직에 관한 새로운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재선거는 최근 반세기 동안 금지되어 있다. 왜냐하면 ‘직무상 책임’(accountability)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2009년 대선에서 이미 일어난 바와 같이, 정부가 선거에서 감히 맞설 수 없는 행위자로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정당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법도 있는데, 이 법은 결국 선거자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법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 비해 국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쟁 상대를 불리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목적은, 비록 사회주의운동당이 과거에 이런저런 점을 이용했고 또 2014년에 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지라도, 사회주의운동당이 지닌 힘이 이런저런 점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_ 조구호 옮김

원제와 출처

Fernando Molina.

“¿Por qué Evo Morales sigue siendo popular?”

Nueva Sociedad. No. 245. mayo-junio de 2013. pp.4-14.

9) 이 지지율은 다음과 세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각종 공사 개시, 도로건설, 현금 투입, 둘째, 극빈층에 대한 정부의 관심, 셋째,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이다.

참고문헌

- Arce, Luis. 2013. “Perspectivas de la economía boliviana.” trabajo presentado en el Foro de Dirección en Banca y Microfinanzas: Nuevas Tendencias Regulatorias y Buen Gobierno Corporativo en el Sector Financiero, organizado por la Asociación de Instituciones Especializadas en Microfinanzas, La Paz, 21 de marzo.
- Autoridad de Fiscalización y Control Social en Electricidad. 2013. “Tarifa Dignidad permitió ahorrar Bs. 59 millones.” *Página Siete*. 25 de marzo.
- Banco Mundial. 2012. *La movilidad económica y el crecimiento de la clase media en América Latina*. Washington, DC: BM. noviembre de 2012.
- Beltrán, Gregory. 2013. “La Renta Dignidad tiene menos beneficiarios.” *La Prensa*. 29 de enero.
- Captura Consulting. 2013. “Encuestas.” *Poder y Placer*. marzo.
- Confederación de Empresarios Privados de Bolivia. 2009. *Comercio exterior ilegal en Bolivia. estimaciones 2000-2008*. La Paz.
- Doria Medina, Samuel. 2012. “Entrevista.” *El Día*, 24 de septiembre.
- “El MAS cumplió 18 años sin convertirse en dirección política.” 2013. *Aquí*. 30 de marzo.
- Fundación Milenio. 2011. *El estado de las empresas del Estado*. Coloquio Económico No 23. La Paz: Fundación Milenio. noviembre de 2011.
- www.fundacion-milenio.org/Coloquios-economicos/coloquio-economico-no-23-el-estado-de-las-empresas-del-estado.html/
- García Linera, Álvaro. 2012. *Las tensiones creativas de la revolución*. La Paz: La Razón.
- Gobierno del 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2012. *Informe de gestión del Presidente Evo Morales*. La Paz.
- Jemio, Miriam Telma. 2013. “Gastaron Bs 2.769,9 millones en subvención de 5 alimentos.” *Página Siete*. 2 de abril.
- “La Renta Dignidad tiene menos beneficiarios.” 2013. *La Prensa*, 7 de enero.
- Mamani, Lidia. 2013. “Las tarifas eléctricas en tres regiones son las más costosas.” *Página Siete*. 25 de marzo.
- Morales, Juan Antonio. 2013. “La economía bajo Evo Morales.” mesa redonda. La Paz: Fundación Pazos Kanki.
- Movimiento Sin Miedo. 2012. *Tesis ideológicas*. Secretaría Política Permanente: La Paz.

- PAPEP(Proyecto de Análisis Político y Escenarios Prospectivos). 2010. Citado en Molina, Fernando. 2011. “El MAS en el centro de la política boliviana.” En Luis García Orellana y Fernando García Yapur (coords.). *Mutaciones del campo político en Bolivia*. La Paz: PNUD.
- Stefanoni, Pablo & Hervé Do Alto. 2011. “El MAS: las ambivalencias de la democracia corporativa.” En En Luis García Orellana y Fernando García Yapur (coords.). *Mutaciones del campo político en Bolivia*, La Paz: PNUD.
- Tribunal Electoral Plurinacional, PNUD y Fundación Boliviana para la Democracia Multipartidaria. 2011. *Los rostros de la democracia*. La Paz. 26 de julio de 2011.
- World Bank. *Benchmarking Data for the Electricity Distribution Sector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 1995-2005*.
<http://info.worldbank.org/etools/lacelectricity>